

동서식품, 취약층에 마스크 30만개 기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전달

동서식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취약 계층 및 소외계층에 KF94 마스크 30만개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를 대비해 관측 증정용으로 확보해 둔 마스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기부한 마스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면역이 취약한 아동



과 노인을 비롯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에 기부하는 마스크는 당사에서 관측용으로 구매해 자사제품 상표가 포장 겉면에 인쇄된 물품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급해 재포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부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구호품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동아오츠카, '내일러 응원' 이온워터 증정 이벤트

동아오츠카는 '내일러'를 대상으로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

2000개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러'는 내일로 티켓으로 전국을 자유 여행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여행자를 말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내일로를 통해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동아오츠카

필립모리스, '빅 이노베이션 어워즈' 수상

조직부문 수상 기업 선정

한국필립모리스는 '2020 빅 이노베이션 어워즈'에서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이 조직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룹이 수여하는 '빅 이노베이션 어워즈'는 소비자들의 삶에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한 조직과 제품, 인재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 심사에 참가한 전 세계 기업들은 기업 현장 리더와 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평가를 받았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일반담배를 대체하고 더 나은 대안을 성인 흡연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담배연기 없는 미래(Smoke-free Future)'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직 혁신을 꾸준히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김민지 기자

펠어비스, 호주·터키 재해복구 1억 기부

검은사막 통해 성금모금 이벤트

펠어비스는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의 이벤트를 통해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호주와 대규모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를 돕고자 성금 1억원을 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사랑 나눔에 동참하세요, 검은사막이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벤트는 전 세계의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해 호주와 터키를 응원하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부터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의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재화로 '나눔의 증표'를 구매하면, 호주 산불과 터키 지진 복구를 위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이용자는 게임 내에서 '날개 없는 천사' 칭호를 얻으며 나눔의 증표 판매



가 총 500만개를 달성하면 펠어비스가 1억원을 기부한다.

성금 1억원은 호주와 터키에 각각 5000만원씩 현지 구호 단체에 전달돼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펠어비스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한 바 있다. 기부금은 강원도 이재민의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됐다. /김나인 기자 silkni@

근심



진성오 소장님

심리카페

근심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마음을 쓰는 상태나 그 마음을 의미한다. 심리적으로 근심은 불안의 사고적 요소로서 개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그 문제 상황이 앞으로 초래할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문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심은 일시적인 경우 순기능을 하지만 만성적인 형태가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심리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잘 지내다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경험하면 근심을 하게 된다. 사는 동안 한 번도 근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 상황이 아닌 데도 만성적으로 근심을 하기도 한다. 이런 근심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오직 인간에게만 관찰되는 현상이다.

근심을 걱정과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하고 있어서 사전적으로 보면 근심은

'괴롭게 애타게 쓰는 마음'으로도 설명되고 걱정은 '근심으로 마음을 태우는 일'의 의미로도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근심은 정상적인 근심이 있는가 하면 병리적 근심이 있다. 병리적 근심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장애는 불안장애 환자들로, 그들은 정상인보다 다양한 위협에 관해 근심하고 더 자주 근심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자주 만성적으로 근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양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근심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데 따른 부작용 혹은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물들은 근심이 없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태평하게 지내는 존재로 고양이를 들 수 있다. 고양이가 근심이 없는 것은 오직 현재에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미래를 가져와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다. 인간은 예외적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에 많은 숫자로 번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앞으로 생기지 않을, 혹은 미리 생각할 필요 없는, 혹은 생겨도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미리 불필요하게 시간을 담겨 근심하도록 하는 저주를 같이 주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근심 혹은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 발견된다. 물론, 이 말은 이미 인간의 역사에서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한데, 바로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과거도 미래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은 근심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또 이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개발된 방법이 바로 명상이며 마음챙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미래는 생각지도 말고 충동적으로 하고 싶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현재에 의식을 두고 현재에 벌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들 때문에 고양이가 만물의 영장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현명하게 진화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듯도 하다. /당신의마음 연구소장

하나銀 中법인, 신종코로나 퇴치에 5억 기부

하나은행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복구와 감염증 퇴치를 위해 총 300만 위안(한화 약 5억1000만원 규모)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 중 250만 위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한시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우한시 자선총회로 기부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전문기금을 통해 정부 주도하의 백신 개발, 환자 진료기관 건설 및 긴급 방호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50만 위안은 중국 내에서 가



장 필요한 구호물자인 마스크를 한국에서 구입, 구호단체에 기부해 구호물품이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하나은행 중국법인 관계자는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국내은행중 대 중국 투자규모가 가장 큰 은행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가 깊어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금융 질서 안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권의 개선정책국장 권석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장 민성심 ◇과장급 △부패심사과장 심재구 △신고자보상과장 배문규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문석구 △국방보훈민원과장 장영수 △경찰민원과장 이재구 △주택건축민원과장 최상근 △교통도로민원과장 정영성 △사회복지심판과장 이성섭 △사회제도개선과장 조덕현 △국민신문고과장 장차철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김형국 △국방대학교 교육과장 원유진 △세종연구소 교육과장 임채수 △통일교육원 교육과장 최기수

◆국가보훈처 ◇전보(과장급)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민영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장 김이주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강은철 △복지증진국 보훈의료

과장 조미란 △광주지방보훈청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정길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과장 이항숙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3과장 한국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 비교문화연구소장 김학수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서승희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 조일동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임준욱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기석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이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배덕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세종연구소 교육과장 이영팔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채수중

부음

▲이병일 씨 별세, 이요한(아비코전자 기술

연구소 이사)·요훈(씨아이피시스템 대표)·유경(포스코 상무)·효경·수경·수자·수희 씨 부친상, 권라영(UPI뉴스 기자) 씨 외조부상 =4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2-3010-2000

▲엄영숙씨 별세, 채용일(한국증권금융투자금융팀장)씨 모친상=5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7일 오전 8시, 02-3779-2190

▲정수애씨 별세, 문일식(하나금융투자 연구금신택본부장)씨 모친상=4일 오후 4시 30분, 은평성모병원 1호실, 발인 6일 오전 0시, 02-2030-4444

▲송정제(전 부산일보 사장) 씨 별세, 인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헤림 헤진 씨 부친상, 하승규(특허청 심사관) 씨 장인상=4일 오후 8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3151